

사회

2010 희망일기

③ '희망전도사' 산악인 김흥빈 대장

“히말라야 14좌 완등 희망의 깃발 꽂겠다”



김흥빈 대장이 지난달 18일 광주 시 서구 풍암동 한신아파트 자택에서 2010년 등반 계획과 새해를 맞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흥빈 대장은 지난 2006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히말라야 8,000m급 14개 봉 완등에 성공한 뒤 ‘청소년을 위한 희망캠프’를 꾸민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 장애, 비 장애 구분없이 청소년들과 함께 등산을 하고 산에서 야영도 하면서 이들의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게 김 대장의 바람이다.

“행복은 항상 제 옆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겪고 열 손가락이 모두 잘린 뒤 처음으로 혼자 숙을 입거나 양말을 신고, 문을 열었을 때 얼마나 기뻐는지 혼자서 울었던 기억들이 잊고져처럼 생생합니다. 계획만 세우지 말고, 꿈을 이루려는 노력을 차근차근해 나간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뤄진다고 믿습니다.” ‘희망전도사’로 불리는 김 대장이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새해 인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난 1일 지구촌새마을재단이 마련한 '2010 호랑이 해맞이 히말라야 희망원정대'를 이끌고 뇌병변·지적 장애인, 호랑이 띠 초등학생들과 함께 네팔 히말라야 칼라파타르(5,550m) 정상에서 새해 각오를 다지고 있는 김흥빈 대장(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지구촌새마을재단 제공>

장애인들과 칼라파타르 새해맞이 올 초오유·안나푸르나 정상 공략 ‘열 손가락 잃고나서 의지 강해져’

파타르(5,550m) 정상에서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지난 1991년 북미 맥킨리(6,194m) 단독등반 중 사고를 당해 열 손가락을 모두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으나 김 대장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꿨다.

김 대장은 “양 손이 잘리기 전까지 나의 등반기는 실패와 포기 의연 속이었다. 열 손가락을 모두 가지고 있었을 땐 아이러니하게도, 단 한자

레오 등정에 성공한 적이 없었다”며 “이 모든 게 몸은 불편해진 반면 정상에 오르는 의지는 오히려 확고해졌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남극대륙 빈슨메시프(4,897m) 정상에 올라 장애인 최초 7대륙 최고봉 완등이라는 대기록과 지난 2006년 가셔브롬Ⅱ(8,035m)를 비롯한 히말라야 8,000m급 5개 봉 등정 등은 모두 김 대장이 부상을 당한 뒤 기록한 등정 기록이다.

“정상에 도전했지만 오르지 못한 산도 있었습니다. 산이 저를 받아줄 때까지 오르고 또 오르겠습니다.”

2009년 새해 벽두 열 손가락이 없는 장애인으로서 사상 첫 7대륙 최고봉 등정이라는 대기록을 수립,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김흥빈(46) 대장은 올해도 히말라야 8,000m급 4개 봉 등정에 도전한다. 김 대장은 “앞으로 5년 이내 히말라야 8,000m급 14좌 가운데 아직 오르지 못한 9개 봉우리를 모두 올라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장은 올 봄 시즌 초오유(8,201m), 안나푸르나(8,091m), 여름 시즌엔 K2(8,611m), 브로드피크(8,047m) 등정에 연속 도전할 계획이다. 앞서 김 대장은 지난 2006년부터 가셔브롬Ⅱ와 시샤판마 남벽, 에베레스트, 마칼루, 다울라기리 등 8,000m급 5개 봉 정상에 올랐다.

김 대장은 “일단 초오유를 등정한 뒤 곧바로 안나푸르나 정상을 공략할 생각”이라며 “고산에 적응한다면 잇따라 2개 봉에 오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K2와 브로드피크도 연속 등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대장은 1일 지구촌새마을재단이 마련한 ‘2010 호랑이 해맞이 히말라야 희망원정대’(<광주일보 2009년 12월 19일자 3면>)을 이끌고 뇌병변·지적 장애인, 호랑이 띠 초등학생들과 함께 히말라야 칼라

실종자 부모 두번 울린

“아들 납치” 보이스피싱

2007년 실종... “돈 주면 살려주겠다” 말레이서 전화

2년6개월 전 실종된 아들의 부모에게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전화금융사기)으로 추정되는 협박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누군가 지난달 30일 오후 2시에 광주시 서구에 사는 류모(62)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으니, 살리고 싶으면 돈을 준비하라”고 말한 뒤 끊었다는 것이다. 류씨는 실종된 자신의 아들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류씨의 아들(당시 26세)은 2007년

5월 28일 새벽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실종됐으며 평소 타고다니던 프라이드 승용차는 며칠 뒤 서구 차평동 무각사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행방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당시 경찰은 류씨 아들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 정보자에게 1천만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었다.

경찰은 이 전화를 역추적한 결과 말레이시아로부터 걸려온 것을 확인했으며 발신인이 돈을 요구한 점으로 미뤄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로 보고 인터넷에 수사공조를 의뢰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996) 김장두



고혈압·심장질환 오전 9~10시 ‘조심’

안전사고 오후 3시·교통사고는 오후 7시 이후

광주119 하루 131명 구조

지난해 광주 119구급대는 하루 평균 146.5차례 출동해 122.5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119구급대는 21.5차례 나가 8.7명을 구조해냈다.

4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활동의 경우 오전 9시~10시 고혈압과 당뇨병, 심장질환자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안전사고는 오후 3시 이후, 교통사고는 오후 7시 이후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교통사고는 30대(20%), 20대(16%), 40대(15%)순으로 나이

가 젊을수록 발생률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북구 운암동과 서구 쌍촌동, 서구 차평동 등에서 사고가 많았다.

119 구급대를 이용한 시민의 41%가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119구급대의 경우 전체의 22%가 동물구조였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구조 신고는 화재출동, 자연재해, 실내 갇힘, 잠긴 문, 승강기 갇힘 순으로 신고 건수가 많았다. 지난 한 해 동안 구조 신고가 집중됐던 시기는 지난해 8월이며, 이 시기 1천 60건이 접수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두암동 주택가 정전 사태

광주 도심 주택가에서 정전이 발생, 주민들이 한때 큰 불편을 겪었다.

4일 한국전력공사 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4분부터 11시 19분까지 5분 동안 광주시 북구 두암동 일대 주택가 20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다. 한편 측은 이날 사고지역 인근에 설치된 변압기에 이물질이 끼면서 정전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향일암 앞 해상서 1t 미크고래 회재

○여수에 사는 어민이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미크고래를 발견해 경인년(庚寅年) 벽두부터 ‘황재수’.

○4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어민 최모(47)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에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 앞 5마일 해상에서 미크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

○이 고래는 길이 4.3m, 둘레 2.8m, 무게 1t 가량으로, 최씨는 포획 여부 등을 확인한 해경으로부터 고래를 인계받아 여수시 중앙동 한 수산물상회에 1천480만원을 받고 팔았다는 것.

○최씨는 “조업을 위해 바다에 나갔다가 뜻하지 않게 고래를 발견했다. 신년 벽두의 행운이 1년 내내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쾌재.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분노의 ‘후생연금 99엔’ 재심 청구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로 동원됐던 할머니들이 최근 일본의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약 1천300원) 지급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키로 해 귀

추가 주목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4일 광주시 서구 차평동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생연금 99엔’에 대한 재심사 청구 계획 등 향후 투쟁계

획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일본이 지난해 12월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라면 두 봉지 값에 불과한 99엔을 지급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재심청구를 통해 일본의 양심을 다시 시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이를 위해 시민모임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돕는 일본인들로 구성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등의 협조를 얻어 정식 청구기한(1월15일)까지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전국 10개 시민화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 설립과 10만명 서명운동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선언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한(小寒)을 하루 앞둔 4일 광주·전남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속출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9시43분께 나주시 노안면 금천면 방향 외곽도로 교량에서 고물 수집용 5t 화물차가 앞서가던 버스를 들이받아 화물차 조수석에 있던 김모(46)씨가 숨졌다. 또 화물차 운전사와 버스 승객 12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고갯도리에서는 1t 화물차가 도로 옆 난간을 추월한 뒤 1m 아래 개울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임모(70)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이날 오후 3시 현재 광주·전남에서 15건의 빙판길 사고가 발생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Sungnam' (성남)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erson and text promoting their products and services. The text includes '성남의 힘으로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 and '성남의 힘으로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